

▶ 독립국악원 을 한해 업무계획

# 전라도 천년 맞아 전통예술 가치 제고

전통과 보존·실현과 대안이 함께 하는 시 대어법으로 전통예술 발전을 꾀한다. 지역 청소년 및 복지시설 방문공연 등 맞춤형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과 문화를 향유 한다.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이태근)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통예술의 창조적 발전' '문화복지 실현' '공격적 예술마케팅' '문화관광 프로젝트' 등의 4대안 활성화를 통해 전통예술의 가치를 제고할 방침이다.

먼저, 예술단 창단 30주년이 되는 올해에는 100회 이상의 공연을 도내 및 국내·외 무대에 올려 전북전통예술의 미를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관현악단(단장 조용안)은 '전라도 천년' 기념 특별공연으로 '위대한 전통 한국의 맥' 어머니의 땅, 천년을 보듬다'를 10월경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대륙으로 웅비한 전북의 기상과 전라도 천년의 역사적 사건을 5개의 절로 구성된다. 판소리합창단·서양합창단·관소리·무용·비보이·백제 고악기(공후·배소) 등 국악인타타 형식으로 연출된다.

창극단(단장 조봉달)은 판소리계 소설인 '배비장전'을 극화한다. 배비장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해학과 풍자를 담아낼 예정이다. 6월경 선보이는 작품은 현대적 대사와 장법을 활용해 대중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신인 무용단장을 맞이한 무용단(단장 여미도)은 국악원의 정체성이 실린 작품을 제작한다는 목표로 공연을 구상 중이다. 3월 중 정기공연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악원은 '예술단 기획공연'을 비롯해 '도내 순회공연' '찾아가는 국악공연' '타시·도 교류공연' 등은 '찾아가는 국악원, 찾아오는 국악원'을 주제로 잇따라 무대에 올린다.

예술단 기획공연은 어린이 가족무용극 '비스푼' (2012년 작품 리메이크)을 제작한다. '공쥐팔귀'를 주제로 모든 세대가 전통 예술을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순회공연은 관현악단의 '국악콘서트, 락', 창극단의 '배비장전, 무용단의 '우수작품전이 군산과 고창, 부안에서 이어진다. 타 시·도 교류공연은 경기도립, 강원도립과 제주도립등과 관현악단, 무용단 및 예술3단 합동공연으



전북도립국악원이 17일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도립국악원에서 열린 예술단 공연.

예술단 창단 30주년 맞아 100회 이상의 공연 예정  
찾아가는 예술교육 진행  
문화복지 사업도 확대  
교육학예실 체계화  
국악연수 운영 통해 국악 저변 확대 힘쓰기로

로 상호방문 또는 단독 공연으로 도의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을 전국에 선보인다. 또 총 19회 공연을 선보일 목요일국악예술무대는 단원 창작 응모작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악원은 문화복지 사업도 확대한다. 문화소외계층 및 문화사각지대 도민들에게 전통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국악공연 및 예술교육'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국악공연은 25명 규모의 소규모 공연단을 꾸려 14개 시·군의 복지시설(20회)과 초·중·고등학교(6회)를 방문하여 공연한다. 찾아가는 예술교육은 국악원 예술단 및 교육학예실에서 강사를 직접 파견하여 6개

시·군에서 강좌를 연다. 교육학예분야의 교육학예실 경우, 중점사업과 신규사업·지속사업으로 체계화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계속사업인 제67기~68기 국악연수 운영을 통해 국악 저변 확대에 힘쓴다. 국악원 자료실에 보관된 보존 자료를 복각한 '풍류방의 명인들 3'을 발행할 예정이다.

신규사업으로는 지역 국악원료를 모시는 '일로국악인 초청 간담회 및 위로의 날 행사'를, 지속사업으로 '전북의 전통예인 구술사발간' '국악교재 편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 우리 전통놀이 '윷놀이' 를 모바일로 | 전당, 내일 한옥마을서 대회 열어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은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9~20일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광장에서 '전통놀이 모바일 윷놀이 대회'를 연다.

전당은 윷놀이가 쾌의 유연성과 전략·반전이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 전통놀이라는 점에 착안했다. 지난해부터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착수하여 '전통놀이 모바일 윷놀이 대회'로 재탄생시켰다.

전통놀이 확산과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대회는 사전접수 대신 현장에서 참여자를 모집,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대회는 우선, 토너먼트 형태의 오프라인 윷놀이 대회를 개최해 승리한 사람에게 모바일 앱 윷놀이대회 참여 출전권이 주어진다. 이어 오프라인 승자들은 모바일 앱으로 경기를 벌이게 되고,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된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최종 우승자와 윷놀이 대회에 참여한 선수들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상품이 각각 주어진다.

오태수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이번 전



한국전통문화전당이 19일 한옥마을 경기전 광장에서 '모바일 윷놀이 대회'를 연다.

통놀이 모바일 윷놀이대회는 온·오프라인을 융합해 진행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전주시민과 전주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전통놀이 문화의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회와 관련된 정보는 한국전통문화전당 홈페이지(www.ktcc.or.kr)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정해은 기자

## 노윤정 개인전 '고립된 감정' 전주영화제작소에서

내달 4일까지 무료 관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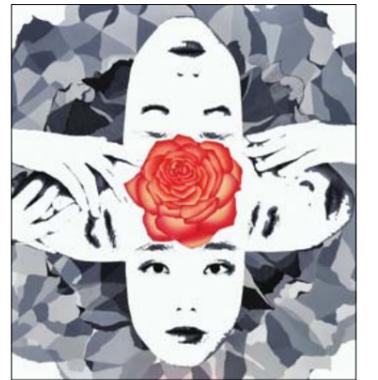
노윤정 작가의 개인전 '고립된 감정'이 전주영화제작소에서 열린다.

전시 타이틀 '고립된 감정'은 나날이 발전해가는 문명과는 대조적으로 정신적 행복이 삭막해져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그 배경으로 한다.

노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누군가로부터 위안 받지 못한 채, 스스로 내면을 감싸 안아줄 여유조차 갖지 못해 발생하는 상처와 무기력한 내면 그리고 우울함에 빠진 철نا와 같은 모습을 회화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현대의 내면이 표출된 작품들을 똑바로 응시하고 마주하며 시각적으로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는 것이 본 전시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했다.

노윤정 작가는 2007년 제9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에서 입선, 제8회 충청미술전람회 특선을 수상한 이래 '한국미술, 내일을 보다', '2011 ASIAF 아시아프', '물의 해방, 새로운 수리' 등 다양한 단체전에 꾸준히 참여하며



전시를 진행해왔다.

전시는 18일부터 2월 4일까지,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 휴관)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2017 겨울방학 특별기획 곤충아트 특별전

http://www.namwon.go.kr

· 일 시 : 2017. 12. 23(토) ~ 2018. 1. 21(일)

· 장 소 :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 운영시간 : 오전10시 ~ 오후5시30분 매주 월요일 휴관

찾아오시는길 문의사항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151 063-620-5751~4

### 겨울방학 특별체험 프로그램

무료체험프로그램

종이랑 나무랑  
운영시간 : 오전 11시30분 (화-금)  
다종이인형만들기  
클레이솜대만들기

하나뿐인 반려식물  
운영시간 : 오후 1시 30분 (화-금)  
다육이화분꾸미기  
마리모수조꾸미기

유료체험프로그램

자개겨울만들기  
운영시간 : 오전 11시30분 (토, 일)

곤충표본만들기  
운영시간 : 오후 1시30분 (토, 일)  
선착순 30명 (50분전 현장접수)

주최·주관 : 남원시    후원 : 산림청